

1970~80년대 수원의 변화

‘효원의 도시’ 수원에서 ‘활기찬 수원 건설’까지

한 동 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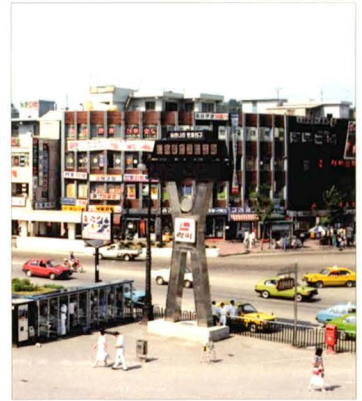
1. 70~80년대 인구 증가와 사회적 변화

외지인들이 수원하면 떠올리는 것으로는 ‘수원화성’, ‘수원갈비’, ‘수원삼성’을 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원은 경기도의 중심도시(수부도시, 도청 소재지)이자 한국농업의 1번지(축만제, 농진청)이며 IT·BT·NT 등 최첨단 산업도시(삼성전자, SK)이고 100만 명이 넘는 전국 유일의 기초자치단체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수원의 이미지가 보다 견고하게 각인되는 것은 1970~80년대라 할 수 있다.

1967년 경기도청이 다시금 수원에 자리 잡으면서 70년대 수원의 변화는 눈을 비비며 바라보는 것이 되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또 다른 일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경향신문은 1970년 7월 31일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축하하기 위한 현상퀴즈를 공모하여 특등상으로 신진자동차의 코로나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후세의 사기들은 2년 5개월만에 완공한 총연장 428km의 이 길을 가리켜 민족중흥의 이정표라고 기록할 것이다.”라는 의도된 정답을 맞추는 것이었다.

‘거대변천의 70년대의 상징’으로 광고되었던 ‘신진 코로나 70’ 신형 자동차는 1976년 현대자동차의 소형 포니 자동차가 228만원에 출시될 때까지 최고급 승용차로 각광받았다. 이제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동차가 국내생산이 되면서 일상의 삶에서 속도가 또 다른 문화코드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1970년 8월 15일 남산호터널이 뚫리면서 강남개발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었다. 더욱이 1969년 럭키차약이 발매되면서 70년대부터 소금으로 이를 닦던 습관을 몰아내며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져온 것만큼 1970년 해태제과의 해태껌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양태로 받아들여졌다. 70년대 거대한 삶의 변천이 시작된 셈이다.

특히 70년대는 인천과 수원을 비롯한 경인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가시화되었던 시절이다. 1960년대 서울로, 서울로 향하던 농촌인구들은 포화상태의 거대도시 서울을 벗어나 경인지역의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원의 인구 증가도 눈부비며 도시 썩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수원역 앞 인구탑

특히 한국 전체 상황에서 1960년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매우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그 중에서도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인구가 폭발적으로 팽창하여 전국토의 약 1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1985년에 이

미 전국 인구의 39.1%에 해당하는 1,583만명이 집중되어 있었다. 1960년대 서울 인구팽창을 뒤이어 1970년대는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으로 인구 팽창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리게 되었다. 즉 서울의 인구는 1960년대 말까지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9%에 달하였지만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성장은 대폭 둔화되는 대신 서울 인근의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고 있으나 경기도의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대조적이다.

1970년대 도청 소재지로서 수원은 더욱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건설과 도로 확장은 도시의 경관과 내용을 크게 변모시키며 ‘약진하는 수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제였다.

1970년대의 변화를 추동한 가장 큰 요인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수원시의 인구는 8만 명까지 증가되었지만, 10만명 선을 유지하게 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1960년대 적어도 1973년까지 수원의 인구는 20만을 넘지 않은 지극히 전원적인, 그리하여 아름답게 불여진 이름 효와 전원의 도시라는 의미의 ‘효원(孝園)의 도시’였다. 그 시절 서울에 살던 청춘남녀는 그리 멀지 않은 수원의 아름다운 풍광과 싱싱한 딸기에 취해 기차를 타고 정영 전원의 도시 수원, 그 싱싱한 공기를 만끽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1967년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수원은 새롭게 변화하게 되었다. 도청 이전과 1970년대 강력한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추진으로 수원은 삼성전자와 신경직물의 생산기지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74년 20만명(210,258명)을 돌파하던니 1980년 30만명(310,757명)을 넘었다. 6년 만에 10만이 증가한 것이니 수백년 동안의 인구증가를 단 몇 년 만에 이룬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정도의 놀라움은 그리 대수로운 일 아니었음을 우리는 몇 년 뒤 깨닫게 된다. 인구증가

의 속도는 4년만인 1984년 40만(402,516명)을 넘더니 그 후 3년만인 1987년 50만(506,060명)을 돌파하였다. 1989년 60만(605,225명)을 넘어섬으로써 2년 만에 10만명이 증가하는 신기록을 세웠던 것이다.

이후 증가속도는 약간 줄어서 4년마다 10만 명씩 증가하였다. 즉 1993년 71만명, 1997년 8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그러다가 1999년 90만 명으로 2년 만에 10만 명이 증가하는 신기록을 다시 작성하더니 드디어 3년 뒤인 2002년 100만을 돌파한 것이다.

그 광복의 인구 증가는 1970~80년대, 즉 20년 동안 인구는 3배가 증가하여 불과, 두 세대 만에 수원의 인구는 10배의 증가를 가져온 셈이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과 도로 확충은 수원이라는 도시의 경관과 삶의 양식을 크게 변화시켰던 것이다.

2. 1970년대 수원의 변화

1960년대의 정치사회적 변화의 핵심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중앙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정치사회적 주도권이 새롭게 재편되었다는 점이다. 수원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도시사를 비롯하여 시장 군수들이 군인들로 채워지고 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이 창당되었다. 수원에서는 국회의원 이병희(李秉禧, 1926~1997)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만들어졌다. 기존의 지역 유지들은 새로운 공화당 체제의 정치세력에 합류하거나 아니면 배척되었다.

그리고 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경제개발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1970년대는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경제개발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개발의 성과에 힘입은 박정희 대통령은 더욱 공고한 체제를 위해 정치적 무리수를 감행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공고한 유신체제의 확립이 그것이다. 소위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의 간접선거 및 국회의원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게 만들었다. 또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하고, 국회 해산권 및 법관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삼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더욱이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초법적인 내용이며 삼권분립 체제를 붕괴시킨 총통제와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1970년대를 특징짓는 유신체제는 지속적인 강제동원과 정신교육을 통한 국가적 통제를 당연시하였다. 반공 궤기대회와 새마을운동 등 강제동원이 일상화되는 정치적 암흑기였지만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국민들은 유신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국가적 정치체제의 변동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군중 동원과 정권의 정치적 홍보를 통해 감당

해야만 했다. 이는 관권과 결탁한 강제동원의 일상화와 정부 여당의 지지를 국가적 충성으로 환치시키는 정치적 세뇌가 일상화되는 시대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 및 시정홍보를 위한 군중 동원이 가능한 수원시민회관과 공설운동장이 새롭게 건립된 것도 이 시대의 일이다. 1970년 12월 팔달산 중턱에 수원시민회관이 건립되었다. 정부 및 시정 시책의 홍보 선전과 지역사회 문화향상을 위한 각종 간행물 및 사진의 전시, 정부시책 또는 문화활동을 위한 영화·연극·음악·무용



새마을 지도자 교육 - 수원시민회관 (1975. 03. 17)

등의 공연, 문화활동 또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집회장소 제공,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게 되었다. 예전의 영동의 시민관을 대신하여 보다 대규모의 시민회관의 건립은 국정 및 시정 홍보와 동원의 필요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공보실이 설치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또한 조원동 수원공설운동장이 공식적으로 개장한 것은 1971년 10월 15일의 일이다. 조원동 624번지 일대 3만1,060㎡(9,412평)의 규모로 수원공설운동장이 다시 개장하였으니, 도청 이전으로 공설운동장이 없어진 지 7년만의 일이다. 수원의 시민의 날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와 전국적 체육대회가 이곳에서 펼쳐졌다. 조원동 공설운동장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후 체육관과 주경기장, 야구장 등이 설치되면서 수원 종합운동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체육대회를 비롯한 대규모 정치집회와 규탄대회, 정화운동 궤기대회 등이 공설운동장에서 수시로 열렸다. 10월 시민의 날을 맞아 행했던 화홍문화제 역시 공설운동장이 주요한 무대였다.

1972년 5월 4일 팔달산 중턱에 강감찬 장군 동상이 건립되었다. 이후 이곳은 수원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다. 70년대 이후 수원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팔달산 중턱에 우뚝하게 세운 강감찬 장군 동상은 20년간 수원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군사정권의 국가적 위인 만들기 사업은 국난을 극복한 장군들을 우선으로 하였고 수원과 상관없는 인물일지라도 그 상징적 의미를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강감찬 장군 동상 건립(1972. 5. 4)

1986년 10월 15일 수원시민의 날을 맞아 지지대 고개 아래 효행공원에 정조대왕 동상을 세웠지만 여전히 수원을 상징하는 인물은 강감찬 장군이었다.

1970년대 수원의 변화 가운데 중요한 것이 1974년 수도권 전철의 개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원 종합버스터미널이 수원역 인근의 매산로 1가 2번지로 이전된 것이 1976년 10월 9일의 일이다. 10월 11일 수원시외버스공용정류장 개장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기존의 남문 일대에 있던 버스터미널이 수원역과 연계하기 위해 좀 더 규모 있는 터미널로 이전된 것이다. 이는 서울에서 인천과 수원까지 오는 수도권 전철이 1974년 8월 15일 개통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74년 수도권 전철의 개통은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수원과 서울의 거리를 더욱 좁힌 사건이었다. 수원에서 서울로 쉽게 통학과 통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수원의 변화 가운데 괄목할만한 것 가운데 하나는 화성 복원사업이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시행된 화성복원은 일제 때 의도적으로 파괴된 시설물과 6.25전쟁을 거치며 파괴된 성곽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었다. 특히 1950년 전쟁으로 허물어진 성곽이 주는 고풍스런 분위기도 나름 의미 있는 것이겠지만 20여년 동안의 풍화와 사람들의 무관심과 방치는 폐허화를 급속히 진행되어갔다. 이에 제대로 된 온전한 성곽의 복원은 국방유적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도시 이미지를 일신하는 것이었다. 또한 화성의 복원작업은 당시 국방유적으로 복원된 서울성곽과 강화성곽 복원사업과는 달리 화성을 쌓을 당시의 공사기록 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 기록을 기초로 하여 온전한 복원사업이 될 수 있었다. 국방유적 가운데 칠백의총, 한산도 제승당, 삼국통일의 위인(김유신) 유적 조성 및 현충사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화성복원 사업은 32억 예산이 들었던 대단위 사업이었다.

한편 수원을 주제로 한 수원 노래들이 만들어진 것도 이 시대의 일이다. 지금도 불리고 있는 <수원의 노래>는 1953년 수원에 피란 온 작곡가 이흥렬이 수원농대 교수 유달영의 노랫말에 곡을 만든 것이었다. 수원여고 음악시간에 처음 불린 이후 수원시의 각종 행사 때마다 부른 노래였다. 이후 1970~80년 수원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제작 보급되었다. 1972년 원병의 시장 시절 시 공모로 당선된 노래인 이미자의 <수원처녀>는 시비 2백만원을 부담하여 음반을 제작하여 배부 보급한 것이었다. 이듬해 1973년 은방울 자매에 의해 지구레코드사에서 발매된 앨범은 수원관련 노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푸른지대로맨스>, <내 고향 팔경>, <호반의 서호>, <강없는 고향>, <띄우는 마음> 등이었다.

1973년 6월 일주일 동안 딸기철에는 푸른지대를 비롯한 딸기밭에 5만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렇게 푸른지대와 이목동 딸기밭은 낭만을 찾는 청춘남녀들로 하여 효와 전원의 도시 수원의 성가를 높이고 있었다. 그렇듯 여전히 1970년대 수원은 정조 임금의 효와 딸기밭과 포도로 상징되는 전원의 이미지를 결합한 '효원(孝園)의 도시'로 서울에서 즐겨찾는 도시로 각인되어 있었다.

3. 산업도시 수원의 성장

1967년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 인구의 증가가 급격하게 진행되었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구 증가는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제 수원의 독자적인 성장 동력이 새롭게 생긴 것을 의미한다.

해방 이후 수원의 산업을 이끌어온 업종은 섬유계통이었다. 선경직물을 포함한 각종 직물공장들은 수원의 대표적 산업으로 군림하였다. 이러한 섬유업은 수원의 포목상을 비롯한 영동시장의 변성을 이끌었다. 선경직물과 선경합섬, 한일합섬 등 대규모 공장들이 수원경제를 이끌었다.

1960~70년대 수원에서 국회의원 이병희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1963년 38세에 수원에서 제6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7선의 국회의원으로 공화당 시대의 유력한 정치인이었다. 이에 따라 박정희 시대의 권력 중심과 깊은 연관 속에서 수원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권력의 또 다른 핵심 실세였던 국무총리 김종필과 육사8기 동기생이었다. 국회의원 이병희는 경기도청(1967년)과 삼성전자(1970년), 연초제조창(1971년) 등을 수원에 유치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0년대 수원은 이러한 일련의 거대한 공장들의 입주에 따른 커다란 변화와 연동되어 있다.

즉 1971년 4월 문을 연 화서동의 수원 연초제조창은 2003년 5월 문을 닫기 전까지 신탄진 연초제조창과 더불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대표적 담배 제조공장으로 '88', '디스' 등의 담배를 생산했던 곳이다. 삼성전자와 선경직물 등과 더불어 수원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시설물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점차 전기·전자산업이 성장하면서 주도적 업종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삼성전자가 1970년 공장을 수원 매탄동 일대에 건립하고 1973년 8월 본사를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수원은 한국 전자산업의 메카로 부상하였다.

1969년 6월 15일 수원공장 건립을 위한 개토식이 매탄동에서 거행된 후 1년 만인 1970년 4월말 삼성-산요(三洋)전기 수원 TV공장이 완공되어 5월부터 라디오·콘덴서·트랜지스터 등의 생산을 시작하였고, 11월부터 TV 시제품이 생산되었다. 이후 진공관, 흑백 TV 등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1972년 10월 수원 TV공장을 더 지으면서 흑백 TV 양산체제를 갖추었고, 1973년 4월 자체 기술로 삼성전자는 트랜지스터식 19인치 국산 흑백TV(모델명 SW-T506L)는 '마하 506'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시장에 출하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1974년부터 삼성전자는 효율적인 경영과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공장을 수원 매탄동으로 집결시키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단위 공장들로 하여 삼성 수원전자단지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갔다. 이후 절전형 TV를 거쳐 1976년 컬러 TV를 자체 개발하였고, 1978년 국내 최초로 전자레인지 개발에 성공하

여 '주방의 혁명'을 몰고 왔다. 1978년 삼성반도체는 이후 삼성그룹을 살리는 대표적 효자산업이 되었고, 삼성전자는 컬러TV 자동화공장, 냉장고 공장 등을 신·증축하면서 수원공장은 대단위 공장으로 확대되었다. 1979년 5월 국내최초로 VTR을 자체 개발하였다.

1970년대 삼성전자가 선도하여 한국은 세계 10위의 전산제품 생산국이 되었다. 1980년 8월 1일자로 컬러TV가 국내 판매가 허용되면서 삼성 이코노 칼라TV는 불황을 모르는 상품으로 판매되었고, 이에 1980년대는 컬러TV 시대가 되었다. 1980년대는 첨단 반도체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세계 속의 삼성으로 우뚝 서는 계기를 만들었다. 1983년 64K D램, 256K D램, 1986년 1메가 D램, 1988년 4메가 D램 개발로 삼성은 세계에서 반도체 부문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1970~80년대 20년간 삼성전자의 성장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고, 삼성전자와 연관된 하청업체를 포함한 경제규모는 수원 경제에 압도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TV·냉장고·에어컨·전자렌지 등 백색가전을 만드는 공장에 취업한 수많은 직공들은 수원의 경제를 역동적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월급날이면 남문일대 상권의 활기찬 모습이 확연히 눈에 보일 정도였다.



삼성전자 수원공장 전경(1989)

4. 새마을 교육과 녹색혁명의 산실

수원은 한국농업의 메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멈추지 않았다. 통일벼와 각종 작물들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농촌에 보급되었다. 특히 통일벼의 품종 개량과 보급은 한국 농업사에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그 역사적 현장이 수원이었다는 점이다.

수원의 서울농대 허문회(1927~2010)교수와 농촌진흥청 연구관들은 1967년부터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해 벼 품종개량에 박차를 가했다. 인디카 계열의 필리핀 벼품종과 대만 벼품종 및 자포니카 계통의 일본 벼 품종의 3원 교배에 의하여 육성된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졌다. '수원 213-1', 'IR667'로 불렸으나 1971년 이를 '통일벼'로 확정하였다.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한 통일벼는 당시 다른 품종들보다 30% 정도 생산성이 높은 다수확 품종으로 병해충에 강하였으나 낫알이 쉽게 떨어지고 밥맛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통일벼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였고 정부 차원에서 통일벼로 재배된 쌀을 사들였다. 이에 1976년 통일벼의 재배면적은 전체 44%로 확대되면서 500만 톤이 넘는 쌀을 생산하여 쌀의 자급자족을 실현하였다. 1977년에는 600만 톤의 쌀을 생산하였고, 생산성은 1ha당 5.3톤으로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 쌀 자급률은 113%를 기록하였다.

1977년의 놀라운 성과에 고무된 사회적 분위기에서 1978년 3월 14일 농촌진흥청은 대강당을 '녹색혁명의 산실'이라 명명하고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녹색혁명 기념탑이 농업진흥청 안에 세웠다. 이렇게 농촌진흥청이 입지한 수원은 녹색혁명의 산실로 각인되었다.

한편 서호 동편 경부선 철로 안쪽으로 높다랗게 선 농민회관은 기차를 타고 수원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건물이었다. 지금은 높은 건물들이 많아 그리 눈에 띄지 않지만 1970년대 당시 별판에 우뚝 솟은 10층 높이의 농민회관은 수원의 또 다른 상징물이었다. 이미 수원은 녹색혁명의 산실 이전에 농민 교육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농림부는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농민회관을 건립하고자 1971년 4월 7일 기공식을 거행하였고 1973년 4월 준공되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농민회관은 3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10층 규모(대지 1만 7,000평, 연면적 2,436평)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었다. 이에 매년 1만 명이 넘는 농촌지도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농민회관이 수원에 건립된 이래 수원은 새마을교육과 농민교육의 산실이 되었다. 농민회관으로 고양군 농협대학 안의 독농가연구원이 1973년 4월 9일 이전되어 왔다. 이후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으로 바뀌면서 새마을 운동을 위한 농촌 지도자 교육과 양성을 맡게 되었다. 이곳에서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면서 1972년 1,490명을 교육하였던 것을 1973년 4,354명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매년 6천 명 이상이 교육받았다. 이렇게 수원은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교육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

한편 통일벼를 통한 쌀의 자급자족은 1972년 10월 유신을 합리화해 주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통일벼의 성공은 식량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됨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막아 내는 효과를 발휘하였던 것이다. 수원은 정조 이래 화성 축성과 서둔·북둔의 조성으로 자급자족적인 도시가 될 수



녹색혁명 성취 기념탑

있었고,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한국 농업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또 다른 버팀목의 역할을 하였다.

5. 1970~80년대 수원시장들과 시정방침

1970~80년대 20년간 수원을 이끈 시장은 모두 9명이었다. 평균 재임기간이 2년이 조금 넘는 셈이다. 그러나 1960년대 수원시정을 주요하게 이끌었던 사람은 남영우 시장이었다. 1964년 12월부터 1971년 8월까지 6년 8개월의 관선 최장기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시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70년대 수원시장으로는 3년 9개월을 재임한 제13대 이재덕(李載德, 1974. 11. 12.~1978. 8. 2) 시장이다. 화성군수를 역임했던 이재덕 시장은 수원시장으로 영전하여 오랫동안 시장으로 근무한 셈이다. 다른 시장들은 2년이 채 되지 않는 재임 기간으로 70년대의 관선시장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1970~80년대를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수원시장직을 수행한 인물은 5년 5개월을 역임한 제15대 허섭(許燮, 1980. 5. 9~1985. 10. 6) 시장이다. 그 뒤를 이어 제16대 유석보(柳錫輔, 1985. 10. 7~1989. 12. 27) 시장이 4년 3개월을 근무하였다. 이 두 사람이 1980년대 수원시장의 전부였다. 그 예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오랜 근무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1970~80년대 수원시장은 이재덕·허섭·유석보 시장 재임기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구분	이름	시장 재직기간
제9대	남영우(南永祐)	1964.12.17~1971. 8.11 (6년8개월)
제10대	원병의(元秉義)	1971. 8.11~1973. 7. 9 (1년11개월)
제11대	유기천(劉基天)	1973. 7. 9~1974. 8.26 (1년2개월)
제12대	김동석(金東石)	1974. 8.26~1974. 11.12 (3개월)
제13대	이재덕(李載德)	1974.11.12.~1978. 8. 2 (3년9개월)
제14대	백세현(白世鉉)	1978. 8. 2~1980. 5. 9 (1년9개월)
제15대	허 섭(許 燮)	1980. 5. 9~1985.10. 6 (5년5개월)
제16대	유석보(柳錫輔)	1985.10. 7~1989.12. 27 (4년3개월)
제17대	김용선(金鎬善)	1989.12.27.~1991. 1. 9 (1년)

1970~80년대 수원시장 현황

한편 시장들의 재직기간 중 밝힌 시정방침과 기본방향 및 역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대의 지향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시정방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70년 남영우(南永祐) 시장 시절 비로소 '시정 기본방향'과 '시정목표'가 제시되었다. 시정 기본방향으로는 1)도청소재지로서 도시개발 및 환경정비와 산업관광 개발로 주민소득을 증대한다. 2) 주민의 단결과 협조로서 건설 의욕을 고취하고 승공 태세를 강화한다. 시정목표로 ①도시개발 ②소득증대 ③복지증진 ④보건향상 ⑤행정개선 등이 꼽혔다.

그리고 1971년부터 '시정방침'과 '시정 기본방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후 이러한 틀이 고정화되었다. 1971년 남영우 시장의 시정방침은 1)인화단결, 2)책임완수였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정 기본방향은 전년도와 그것과 같았다. 도청소재지, 도시개발, 환경정비, 산업관광, 주민소득 증대 등 수원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승공태세 강화 등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용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수원시는 경기도청 소재지로서 새로이 개발되고 성장하면서 근대적인 도시로 발전함에 따라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특이한 행정수요가 현저히 증가되고 있었다.

1971년 8월~1973년 7월까지 재임한 제10대 원병의(元秉義) 시장의 시정방침은 1)알찬 도시 건설, 2)시민 복리 개발, 3)민주 행정 구현이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리기 보다는 일반적이고 무난한 시정방침이었다.

1973년 7월~74년 8월까지 재직한 유기천(劉基天) 시장의 시정방침은 '20만의 대 전진, 앞서는 새 도시' 1)목민봉사, 2)알찬개발, 3)기풍새신이었다. '20만의 대 전진'을 앞세운 것은 1974년 수원시 인구가 20만 명을 넘는 역사적 사실을 자부하는 시정방침인 셈이다. 이제 70년대 인구증가의 대변화를 예감하는 것이었다.

1974년 8월~11월까지 3개월 동안 근무한 김동석(金東石) 시장 때 시정방침은 1)도시질서의 확립, 2)소득위주의 새마을, 3)내실행정의 강화였다.

수원시장으로 부임하여 3개월만에 바뀐 김동석 시장은 육사8기로 김종필과 이병희 등과 동기였다. 또

한 6.25전쟁 때 첩보장교로 활동하여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대령으로 예편하여 관료의 길을 걸었다. 가수로 활동한 진미령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3개월 만에 수원시장을 그만 두고 자리를 옮긴 것은 당시 수원의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었다. 당시 수원시 공무원은 600명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300명이 줄을 대서 공무원이 되었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였다. 당시 동장 자리는 100만원으로 공공연하게 거래될 정도였다. 이러한 사실을 안 김동석 시장은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하였고 공직사회는 크게 출렁거렸다. 더욱이 정부양곡보관소의 부정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특권세력들은 당황하여 도지사를 움직여 김동석 시장은 경기도 북부출장소장으로 전보발령되었다. 이는 수원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이 1970년대 정치적 현실과 권력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재덕 시장이 되면서 '75년 기본목표' 아래 시정지표로 '효원(孝園)의 새 수원'이 처음 등장하였다. 시정방침으로 성실한 봉사, 엄정한 책임, 착실한 결실을 내걸고 실시방향으로 유신이념의 생활화, 새마을운동의 가열화, 영세시민생활의 안정화, 대효원의 건설, 도시기반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효원(大孝園)의 건설'이라는 '효원의 도시'는 한 동안 수원을 알리는 상징적 어휘였다.

이재덕 시장 시절인 1976년 문화공보실에서는 수원시 새마을화보를 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23만의 결속운동 시정간담회'이다. 이는 대화를 통해 유신총화를 다지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 구현을 목표로 한 수원시의 특색사업으로 적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공보실의 역할과 의미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화공보실 발행 새마을화보 (1976. 9)

1978년 8월~1980년 5월까지 근무한 백세현(白世鉉) 시장은 앞서 이재덕 시장 시절의 시정방침인 '효원의 새 수원'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그러면서도 1)유신 총화 구현, 2)활기찬 도시 정비, 3) 창의 능률 행정을 내걸었다. 동시에 총화안보, 도시 새마을운동, 푸른 도시 조성, 복지증진, 산업진흥 등을 역점 사업으로 꼽으면서 보다 경직된 정치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가 되면서 '효원의 도시 새 수원'을 넘어 '활기찬 새 수원 건설'로 시정 방침이 바뀌게 된다.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재임한 허섭 시장 때부터 뒤를 이어 1989년까지 재임한 유석보 시장 재임 때까지 80년대 내내 시정방침이 '활기찬 새 수원 건설'이었다. 허섭 시장 때 실시방향으로 역점사업은 시민생활 안정확보, 봉사행정의 내실화, 시민의식의 선진화,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지역개발의 활성화, 문화창달과 체육진흥 등이었다.

1985~89년 유석보 시장 때 시정 구호도 '활기찬 새 수원 건설'이었다. 시정방침으로 1)화합과 안정, 2)봉사와 신뢰, 3)균형과 개발, 4)번영과 문화였다. 이제 문화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다. 시정 역점사업의 끝부분에 문화가 비로소 명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수원시민헌장이 제정된 것은 남영우 시장 시절인 1964년 즈음이었다. 수원시민헌장이 『수원시 통계연보』 1965년도판에 처음 실리고 있다.

〈수원시민헌장〉

수원은 이 나라의 농업과학의 심장이며 수도 서울의 관문입니다.
역사깊은 고적과 아름다운 자연은 또한 우리고장의 두드러진 자랑입니다.
살기좋은 복지사회를 우리들의 손으로 여기 이룩해 가기 위하여 마련한
이 헌장을 한결같이 서로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따뜻한 가정 정다운 이웃 명랑한 거리를 이룩해 갑시다.
2. 알뜰하게 부지런하게 역척스럽게 서로 도와 건설해 갑시다.
3. 어린이와 젊은이를 앞날의 일꾼으로 대견스럽게 길러갑시다.
4. 우리 향토의 고적과 자연을 아끼고 정성껏 가꾸어 갑시다.
5. 온 시민이 한 가족처럼 온 도시가 한 집안처럼 살아갑시다.

이러한 수원에 대한 자부심과 수원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자세의 요구는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이 결정된 직후의 일이다. 수원의 역사문화적 자부심은 도청 이전부터 〈수원시민헌장〉으로 명문화되어 내재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한 확연한 기념물의 증거를 세우게 되는 것은 20년 이후의 일이다. 〈수원시민헌장〉의 글을 새긴



시민헌장비(1987. 6. 24)

수원시민헌장 기념탑이 제작되어 시청 앞에 건립된 것은 1987년 6월 20일 유석보 시장 시절이었다. 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수원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의 근저에는 경기도의 중심도시로서 수원에 대한 역사문화적 자부심에 기초한 도시 발전에 대한 수원사람들의 의지와 노력도 한몫했다는 점이다. 1992년 영국에서 불을 일으킨 시민헌장제도가 있다. 공공기관의 고객지향적 의무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그러한 고객지향적 의무와 시민의 권리 등을 담고 있지 않지만 수원시민헌장을 1960년대 제정하였다는 점에서는 놀라운 일이다.

결국 1970년대 초반 '20만의 대 전진(大前進), 앞서가는 새 도시'에서 1970년대 후반 '효원(孝園)의 새 수원'을 지나 1980년대 '활기찬 새 수원 건설'의 시정 구호로 바뀌었다. 대전진, 약진수원을 거쳐 효원의 도시를 지나 활기찬 새 수원으로 바뀐 셈이다. '선진경기(先進京畿) 약진수원(躍進水原)'의 슬로건은 70~80년대를 관통하는 이 시대 수원의 면모인 셈이다.

6. 공보실, 문화공보실의 설치와 운영

1960년 수원시 기구는 6과 24계로 조직되어 있었다. 총무과(서무계·시정계·회계계·用度계·의회계·저축계), 재무과(1~4계), 호적병무과(호적계·병사계), 사회과(보건계·사회계·勞政계), 산업과(상공계·糧政계·농림계·畜政계·농지계), 건설과(서무계·토목계·도시계·水原계) 등 이다. 이 가운데 노사관계의 노정계와 산업과의 양정계와 축정계는 양식과 축산과 관련한 것이지만 건설과의 수원계는 특이한 이름이다. 특징있는 수원을 건설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해방 직후에 도 단위에는 공보계가 존재하였는데, 1946년 전남 광주부의 공보계에서는 「해방전후 회교」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1947년 3월 공보과에 공보계와 조사계를 둔 적이 있다. 더욱이 1950년대 경찰 조직 가운데 치안국의 공보계는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시체제 확립과 문화계몽 차원에서 정권 안보적 활동을 펼쳐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군 단위에 공보계가 설치된 것은 1960년대 일이다.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개혁이 이루어졌다. 수원시 기구도 이에 따라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 가운데 중요한 변화는 공보계를 확대 강화한 '공보실(公報室)'이 처음으로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에 첫 공보실장으로 지방행정 주사 권영구(權寧求)가 내정되었다. 수원시 기구는 공보실과 총무과(서무·市政), 재무과(부과·징수·정리·회계·지적), 교육과(학교관리·장학), 사회과(사회·보건위생), 호병과(호적·병사), 산업과(농림·상공·양정·축정), 건설과(관리·토목·도시·수도) 및 농촌지도소, 전당소, 도서관 등 1실 7과 2소 1관 체제로 확대되었다. 이는 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설치된 공보실의 존재는 60~70년대를 특징짓는 것이기도 하다.

1962년 보건소가 직제로 추가되면서 보건행정이 새로운 단계로 추진되었고, 공보실은 공보계(公報係)와 방송계(放送係) 2계로 확대되었다. 1964년 다시 공보실 체제는 공보계와 선전계(宣傳係)가 되는데, 방송계라는 이름을 선전계로 바꾼 것이었다. 이듬해인 1965년 다시 선전계는 보도계(報導係)로 이름을 바꾸어 1969년까지 이어졌다. 1960년대는 공보실 체제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공보실로 이

름을 바꾸게 된다. 즉 1970년 공보실은 문화공보실로 이름을 바꾸면서 공보계와 문화계가 되었다. 보도계가 문화계로 이름을 바꾼 것이니 방송계 → 선전계 → 보도계 → 문화계로 이어진 셈이다. 한편 1972년 12월 30일 수원시에서 발간되던 「수원시보」는 「수원새마을공보」로 이름을 바꾸어 발간되었다. 문화공보실이 주관한 사업이었다.

문화공보실은 1980년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 70년대를 대표하는 기관이었다. 1983년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름을 바꾸면서 문화공보계와 관광계를 산하에 두었다. 즉 공보계와 문화계를 합쳐 문화공보계를 만들고 새롭게 관광계를 설치한 셈이다.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도시·시간 관광을 통한 소득경쟁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한편 1992년에야 비로소 문화관광과가 설치되었다. 1960년대 공보실에서 1970년대는 문화공보실, 1980년대 문화공보담당관실, 1990년대 문화관광과로 이름을 바꾸며 각 시대에 대응한 셈이다.

7. 공보실의 사진을 찍은 사람들

1961년 공보실이 설치될 당시 가장 효과적인 홍보매체는 사진이었다. 수원시 공보실에서 사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서라벌예대 사진과 출신인 이종원을 채용하게 되었다. 1963년의 일이다. 이종원은 수원 출신으로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사진학을 공부한 최초의 인물이다. 이에 대한 자부심과 사진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였다. 그러나 공보실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경인일보사로 이직하였다. 이종원은 1974년 순수사진 동호인 모임인 '별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였고, 이후 국전 사진부문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또한 『경기포토』 편집인으로 언론활동과 사진작업을 병행하였다. 이종원은 1978년 11월 화성 복원을 즈음하여 수원중학교 때 찍은 화성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성곽의 변천을 보여주는 개인전을 개최하여 수만 명의 관람객을 모은 바 있다. 이종원의 후임으로 박춘식이 공보실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1968년부터 1973년 1월까지 공보실 시절 입사하여 문화공보실로 이름을 바꾼 즈음에 근무하였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유재무가 1973년 9월부터 1979년 4월 11일까지 문화공보실에서 6년을 근무하였다. 유재무는 이종원과 수원중고등학교 동기동창생이었다. 유재무는 1980년 5월 문화공보실을 떠나 다른 업무를 하게 되었고, 그 후임으로 이용창이 1979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시회 사진들은 1970년대 찍은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필름상태의 사진을 스캔작업을 통해 디지털화한 것들이다. 1980년대 사진들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이번 전시에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논고

1969년도부터 남아 있는 1970년대 사진은 공보실에서 찍은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표정과 생동감 넘치는 사진들이다. 대개 공보실의 기능과 특성은 기관장인 시장(市長)의 동선을 따라 행사 사진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시장 재임시절 업적과 내용을 담은 사진들은 사진첩의 형태로 제작하여 이임하는 시장들에게 선물하곤 하였다.

1970년대 공보실에서 근무한 박춘식·유재무가 찍은 사진은 우선 새마을 운동과 꺾기대회 등 동원된 군중들 사진과 정치와 선거 관련 사진들이 있다.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사진들이다. 더욱이 수원의 시가와 도시 풍경을 담은 사진들이 더욱 귀중한 것들이다.

정치와 선거관련 사진을 들여다 보자.

1970년대 선거는 1971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1972년 유신헌법을 위한 국민투표와 1973년 총선, 1978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특히 1971년 4.27대통령 선거는 공화당 박정희 후보와 신민당 김대중 후보 사이에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졌다. 박정희 후보는 1971년 4월 20일 조원동 수원공설운동장에서 대대적인 선거유세를 펼쳤다. 당시 공식적으로 공설운동장이 개장하기 전이었지만 공화당 대통령 유세가 6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이곳 조원동 공설운동장에서 열렸다. 관공서를 비롯한 각종 기관과 단체 및 공화당의 조직적 동원으로 공설운동장은 발디딜 틈 없이 만원을 이뤘다. 공설운동장 정면에는 '혼란에 울지 말고, 안정에 웃고 살자', '가난 이긴 그 일꾼에, 70년대 또 맡기자'라는 대형 입간판이 세워져 집권당의 안정적 정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 후보의 발언 가운데 "통일을 위한 민족주체세력의 결성 필요성" 과 "세금 향군(鄉軍) 교련(教練)이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겠지만 세금 없이 국가발전이 없고, 향군 교련 없이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신문에서 주목하였다.

이에 신민당 김대중 후보의 선거유세도 4월 26일 수원에서 실시되었다. 구천동 대성목재 앞 수원천변의 공터였다. 예전의 장터였던 곳으로 씨름대회와 개달리기 경주 등이 펼쳐졌던 곳으로 6.25전쟁 직후에도 잠시 장이 섰던 곳이기도 하다. 현 리젠시호텔(옛 브라운관광호텔)과 수원천 사이였다. 그러나 언론은 김대중 선거유세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1970년~80년대를 규정하는 것은 10월 '유신체제'라 할 수 있다. 그 체제의 결정은 1972년 국민투표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탄생하였다. 이에 1972년 10월 유신에 대한 국민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는 정권의 차원에서 전면적일 수 밖에 없었다. 국민투표 독려 플랑카드는 도처에 휘날렸고, 복문 앞에 걸린 사진을 볼 수 있다.

"새 시대 새 헌법 새 역사를 창조하자"(수원지방 원호지청)라는 글귀였다. 그리고 문루가 복원되지 않은 복문 안팎으로 홍보 간판이 붙었다. 복문 밖에는 "지지하자 10월 유신, 참여하자 국민투표"(수원연초

제조창), 안쪽에는 “번영위한 유
신이다 통일위한 개헌이다”(농협
중앙회 경기도지부)라는 글귀가
당대 가장 대표적인 공장과 단체
의 이름으로 걸려 있었다. 10월
유신과 유신헌법 및 유신체제가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용인되도
록 하는 것은 지속적인 선전과 세
뇌였음을 잘 보여준다.



유신개헌 홍보물(1972)

1973년 2.27총선을 독려하는 홍보 선전물이 시청 건물에 설치되었다. “20만의 힘을 모아 향도도시 이룩
하자” “뿌리뽑자 타락선거 뿌리박자 공명선거, 바로잡자 선거풍토 바로뽑자 유신역군” 등이었다.

1978년 5월 현대 건축사무소 벽에는 심상복, 허각, 전영수, 단창오, 윤영호, 김동범, 박선옥, 조정환 등
9명의 후보자의 선전물이 붙었다. 5월 18일 실시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벽보였다.

1978년 12월 1일 선거벽보는 이병희, 유용근, 손도심, 공상진, 김일수, 김진구, 서태원, 차진모, 최영래,
홍기유 등의 선전물이 붙었다. 1978년 12월 12일 제1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한편 1980년 10월 국민투표 홍보 아치가 시내에 설치되었다. “새 질서 새 시대 새 사회, 국민투표 참여
하여 복지국가 건설하자”

1980년 10월 16일 수원을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등장한 가운데 “나의 피와 땀을 마을과 조국
에!”라는 플랜카드가 배경인 사진이 남아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적 사실과 현실적 언어의 괴리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정의롭지 못한 세력에 의한 무력에 의한 권력의 찬탈과 그들이 내걸고 있었던
정치적 구호, ‘정의사회 구현’을 어찌 감당할 수 있던 말인가?

1980년 광주항쟁은 광주사태로 호도되며 언론통제를 받았고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진실이 알려질 때
까지 1980년대 역시 정치적으로 힘겨운 고난의 시대였다. 시청을 비롯한 관공서는 당시 정권의 충실한
버팀목이었다. 그 당대 정권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전물을 공공장소에 걸어놓음으로써 국정과
시정을 일치시켰다. 민주적 시민사회 형성과 민주주의적 성장과는 거리가 먼 권력의 안전판으로 기능
했던 20년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1970년대 흑백사진들은 생동감이 넘치는 것은 행사 위주의 사진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인물
위주의 사진들로 사진첩이 제작되고 난 것들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표정과 거리들,
그리고 시대적 상황들이 잘 남아 있는 것이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의식과 안목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기도 하다. 사진학과를 나온 이종원과 별모임 등의 교류 등도 수준높은 안목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미 수원에는 1950년대 결성된 사진동호 모임인 '수원사우회(水原寫友會)'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과 지역에 대한 애정이 반영된 사진들이라 하겠다. 그렇게 1970년대 사진은 우리의 또 다른 자산으로 남게 되었다.

8. 1980년대 자본주의적 물신화와 전통의 몰락

1980년 경수산업도로가 착공 9개월 만에 2공구 구간이 개통되었다. 서울과 수원을 오가는 산업도로의 확포장은 1번 국도가 수원 시내를 통과하던 기존의 노선에서 수원 외곽으로 에돌아 나가는 것이었다. 이는 동수원 개발과 연동되는 것이기도 했다. 수원의 경제를 이끌었던 전통적인 우시장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이백일(소령 예편) 수원시장의 이전 명령에 따라 영화동 37번지 일대로 이전하였다. 이에 1962년 1월 19일 당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춘 우시장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60~70년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수원우시장은 서울에서 수원으로 오가는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1번 국도의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우시장의 일부가 경수산업도로의 일부로 편입되는 상황이 됨에 따라 수원 우시장은 좀 더 한적한 곳을 찾아 가야 했다. 따라서 1979년 수원의 최남단 곡반정동 신촌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1996년 9월 23일 곡반정동 우시장



마지막 수원우시장(곡반정동)

의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수원 우시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우시장의 변동만큼이나 수원의 외곽으로 확장과 그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도 없는 셈이다.

1980년대 수원은 '동수원 개발'이 가속화된 시대라 할 수 있다. 동수원 한신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계동, 매탄동을 비롯한 동수원 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이 광범하게 진행되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이후 수원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화성 읍내를 중심으로 한 수원의 변화와 발전은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쉬운 동수원 개발로 나타났다. 즉 기존의 중심 동선이 일방적인 남북축에서 또 다른 동선으로 동서축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동수원 개발의 압력과 변화는 경수산업도로의 확장과 함께 법원과 검찰청이 원천으로 이전하고 수원시청이 인계동으로 이전하면서 확인한 것이 되었다. 원천저수지 일대가 원천유원지로 관광단지로 개발되면서 더욱 그 흐름은 활발해졌고, 전통적으로 수원읍내에 준비하던 수원갈비집들이 원천 일대로 대형화하면서 서울 인근에서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들로 더욱 수원갈비의 명성은 높아갔다. 수원에서 용인으로 가는 길이 확·포장되면서 인계동과 원천 일대의 개발이 더욱 촉진되었다. 원천 유원지는 용인 자연농원(에버랜드)이 생기기 전까지 경기남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었고 흥성원의 소설 「주말여행」의 모티브를 제공한 곳이기도 하다.

1980년대 수원의 변화는 동수원 개발과 자본주의적 물신화와 전통의 몰락으로 정리할 수 있다.

1969년 남문 영동시장 안에 시민백화점이 문을 열면서 소형 백화점 시대가 열렸다. 건평 300평 규모에 점포수 47개로 문을 연 미니 백화점이었다. 이후 보다 규모가 큰 백화점으로 1974년 크로바백화점, 다시 남문백화점(1977년), 삼원백화점(1977년), 수원쇼핑(1980년) 등이 문을 열면서 남문의 상권은 경기남부 지역의 상권을 압도하는 것이 되었다. 이들 백화점은 100~250개 매장을 지닌 미니 백화점이었지만 70년대말부터 1980년대까지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군림하였다. 이 시절이 남문 일대 영동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의 최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삼성전자의 월급날이면 남문 일대 상권의 흥청거림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말이 되면서 상품가격이 높은 것에 비해 품질이 좋지 않고, 서비스도 별로라는 인식 속에 대거 시민들의 이용율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1987년 수원시민들의 지역 상권 이용율이 30%가 안되고 서울로 원정쇼핑하는 경우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이 될 정도였다. 당시 서울의 이름 있는 대형 백화점들이 강남을 중심으로 대거 입점하였기 때문이다.

1991년 12월 영동시장의 전통시장과 그 안의 미니급 백화점들과 거리가 멀지 않은 곳



영동시장 내 크로바백화점

에 뉴코아수원백화점이 들어섰다. 지하4층 지상 12층 연건평 8천여 평의 대형 직영 백화점의 등장으로 수원의 상권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후 더 규모가 큰 2호점인 뉴코아 동수원점이 생기면서 이제 대세는 대형 백화점과 쇼핑센터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이제 70~80년대까지 지역 유지들에 의해 주도되던 지역 경제의 영화는 거대 자본에 의해 잠식되면서 자본주의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남문과 수원역의 중심 상권을 넘어 부도심의 상권에 대형 백화점과 쇼핑센터가 건립되면서 그 흐름은 견잡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수원의 인구 20만 명이 넘는 것이 1970년대부터 시내 팔달문과 수원천을 중심으로 시장이 전문화되면서 성장하자 수원의 상권은 경기남부를 넘어 충청 이남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동시에 4대문 밖의 부심권에 시장이 형성되면서 인구의 팽창에 따른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북문 거북시장과 연무시장·조원시장 그리고 권선시장·구매탄시장·정자시장 등이다.

이렇게 수원은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외연이 확대되면서 1980년 30만 명을 넘고 1984년 40만명을 돌파하는 상황과 함께 시장의 수가 증가하였다. 1990년대 이후 큰 시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미 동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백화점 같은 대형유통 업체가 들어서면서 경제적 유통과 소비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1980년 유통관계법이 완화되었고 1990년대 대기업이 유통업에 참여하면서 대형백화점들이 지역에 되었다. 1961년 영동시장에서 3만원의 자본금으로 비누와 라면 설탕 등을 파는 식료잡화점을 열었던 주성광(朱聖光)은 대리점으로 발전시켜 20년간 도매업을 하였다. 그리고 1981년 양질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싼값에 가까운 곳에서 공급한다는 모토 아래 성광수퍼체인점을 열었다. 1980년대 성광체인점 전성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당시 대구 동아백화점 화성산업, 삼양식품 체인, 부산 근대화체인 등 지역을 대표하는 슈퍼체인점이 있었다. 1994년 성광수퍼체인점은 직영판매점 15, 가맹판매점 26곳 등 41곳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연간 276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수원지역의 유통업을 석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대기업이 유통업계에 대거 참여하면서 고전하면서 1993년부터 중국 하얼빈으로 사업무대를 옮겨감에 따라 그 많던 수원의 성광슈퍼는 이제 찾기 어렵게 되었다.

수원갈비의 원조였던 화춘옥의 전통과 명성은 1979년 그 자리에 수원쇼핑을 건립하면서 끝이 났다. 화춘옥 주방에서 20년간 갈비맛을 내던 추정헌(秋貞憲)이 남문에 화정식당 개업하였고 이를 비롯한 수원 갈비집들이 즐비하게 성업하는 갈비골목이 만들어졌다. 서로 전통수원갈비라는 이름을 달고 경쟁하면서 수원갈비의 명성은 전국적인 것이 되어 갔다.

한편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이에 따른 1980년대 동수원 개발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수원갈

비집들이 대형화하기 시작하였다. 남문 주변의 전통적인 방식의 갈비집들인 화정식당, 장수갈비, 한우 갈비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80년대가 되면서 동수원 사거리 주변에는 수원성갈비와 본수원갈비, 우만 가든 등이 새롭게 자리잡았다. 더욱 법원이 자리한 원천유원지 인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가까운 곳에 대형갈비집들이 즐비하게 자리잡았다. 우리원갈비, 신라갈비, 삼부자, 왕갈비 본집갈비, 원천가든, 본고장갈비, 배나무, 원두막, 본토갈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지지대를 넘어오는 노송지대 일대에 경남가든, 부국가든, 송정가든, 효행가든, 삼풍가든 등 수영장까지 갖춘 대형 갈비집이 수원갈비를 전국 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었다. 특히 수원인터체인지에서 원천의 국토지리원에서 수원시내 쪽 도로 양쪽으로 한집 건너 꼴로 갈비집이 성업 중이었다. 1983년 수원갈비집은 30여 곳이 성업 중이었다. 당시 갈비맛도 맛있지만 널찍한 정원에 원두막을 지어놓고 풍치를 한껏 뽐내는 대형 갈비집은 연중 불황을 모으며 성업 중이었는데 평일 3천명에서 주말 4~5천명이 이용할 정도였다. 소위 대박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은 본수원갈비, 신라갈비와 삼부자갈비 그리고 효행가든, 삼풍가든 등을 꼽을 수 있다.

9. 6월항쟁과 87년 체제의 형성

1980년대는 1980년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계엄령으로 시작되어 그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집권과 그에 대한 저항, 그리고 86아시안게임과 87년 민주화운동, 그리고 88서울올림픽을 경과하는 격동의 연대였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은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이정표를 만들었다. 호헌철폐와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국민들의 대장정이었다. 수원에서는 6월 18일 3천5백여 명이 지동 성빈센트병원 앞길과 수원역 앞길, 남문 로터리 등지에서 '호헌철폐' 외치며 시위를 펼쳤다. 우만동 동수원갈비교회에서 '민주정치를 위한 기도회'가 개최되었다. 강돈구 한신대 교무처장을 비롯한 한신대 교수와 교직원 50여 명과 박용모 목사를 비롯한 수원NCC소속 목사 20여 명과 학생 800여 명, 신도 200명이 참석하였다. 기도회 이후 거리로 진출하여 경찰의 저지로 성빈센트병원 앞길에서 시위를 펼쳤다. 수원역 앞길에서는 서울농대생 1천 500명이 '최루탄을 쓰지 말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경찰과 투석전을 펼쳤다. 또한 남문 로터리에서는 경기대·아주대·한신대 학생 800여 명이 연좌시위를 벌였다. 수원의 시위는 자정 늦게까지 진행되었고, 학생 300여 명은 서울농대로 들어가 강당 앞에서 햇불을 밝히며 철야농성을 하였다.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위가 펼쳐졌다.

'독재타도'와 '직선쟁취' '직선제 개헌' 등을 외치며 거행된 대행진은 전국적으로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수원에서도 7시로 예정된 대행진이 경찰의 봉쇄로 무산되자 이후 팔달로와 매산로 등지에서 수천 명이 산발적으로 시위를 계속하였다. 8시 경 천주교 복수동 성당에서는 신부와 신도 600여 명이 '민주회복을 위한 정의평화 기원미사'가 열렸고 이후 거리로 진출해 밤 11경에는 시위 군중이 4천여 명으로 늘어나 수원역까지 촛불행진을 펼쳤다.

이후 6.29선언과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제도적인 민주주의 틀이 형성되었고 이후 이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87년 체제'로 일컫는다. 1987년 6월 항쟁이 만든 거대한 역사적 변화는 지금도 지속되는 것이라 하겠다.



수원 팔달구 지동 거리 집회(1987. 6)

※ 부기 : 1980년대 사진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여서 수원박물관에서 수집한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들만 도록에 사용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향후 보다 풍부한 80년대 사진들을 확보하여 역동적이었던 1980년대 수원을 보여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1970년대 공보실의 박춘식·유재무 선생의 공력과 수원시 정책홍보담당관실 이용창 선생님과 사진을 제공해 준 여러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